

# 깨끗하고 건강한 유정란 생산에 중점

- HACCP 인증농장 -



▲유창계사 5개동으로 평균 4만수 규모

이 번호는 경기도 이천에서 산란계 무항생제 사육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유정란을 생산, 공급하는 모룡산자연농원(사장 김동수)을 찾았다.

김동수 사장은 10여년간 유정란 생산에만 힘을 기울여오면서 지난 3월 HACCP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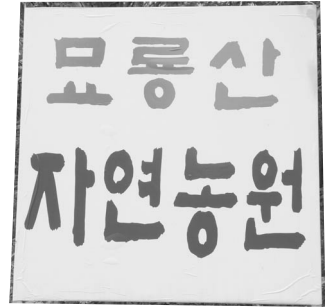
▲모룡산자연농원 김동수 사장

## 20여년 전 양계업 시작

1988년 양계사업을 처음 시작한 김동수 사장은 “땅에서 일구는 사업인 농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당시 삼미부화장을 운영하는 매제의 도움으로 양계사업에 발을 들였다.

당시 230㎡(70평) 하우스간이축사 1개동에 육계 4천수 규모로 시작해 1만2천수까지 사업을 늘렸지만, 원가 이하의 시세로 적자운영이 지속되면서 4년여 만에 접는 뼈아픈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양계업에 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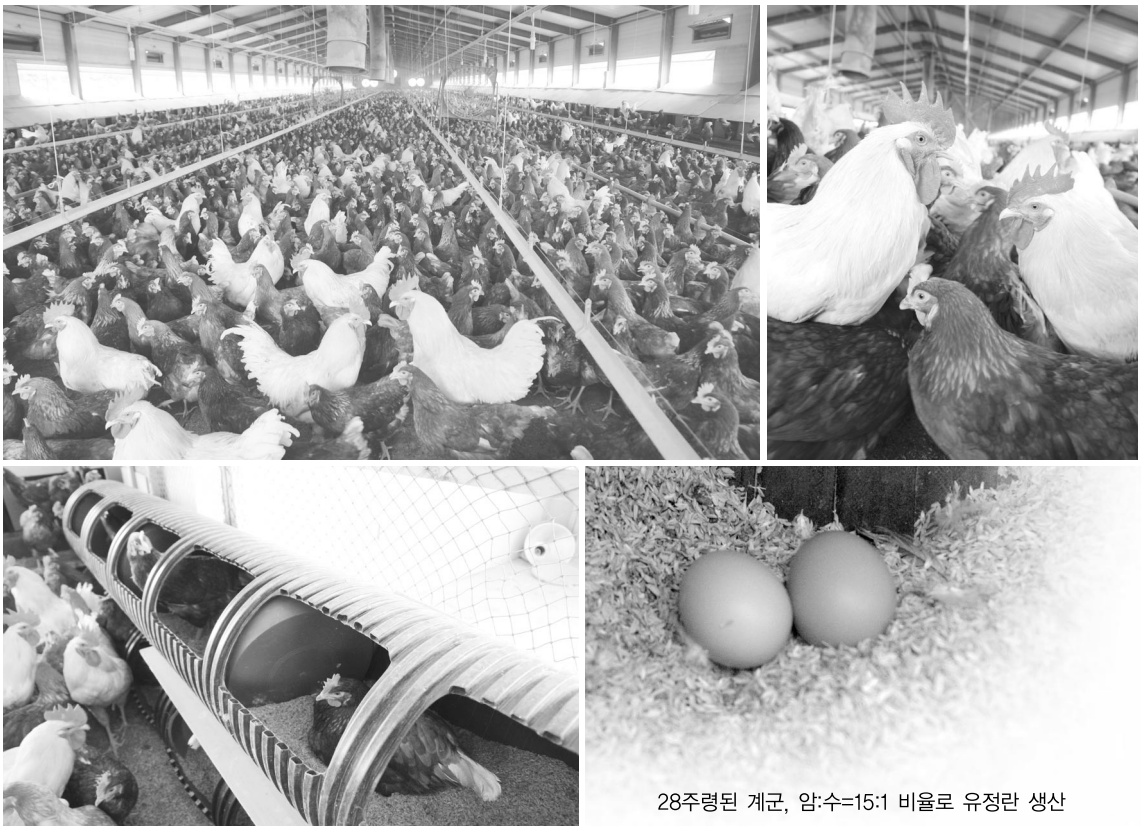
어든 이상 포기할 수 없었기에 부화장에서 종계와 중추육성 사양관리 담당자로 필드 경험을 축적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정란 생산**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용인시에 유정란 생산을 위해 8천5백수로 시작해 4만수로 규모를 키웠고, 택지개발이 들어가면서 지난 2007년 이천시 율면 소재 묘룡산자연농원을 설립했다. 농장 부지 5,600㎡(1,700평)와 집하장 260㎡(80평) 규모로 5개동 계사에 산란계 4만수 규모로 일일 평균 3만2~4천개의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케이지 사육과 달리 평사 혹은 방사로 키우기 때문에 소규모 사육이 대부분이지만, 묘룡산자연농원은 그간의 유정란 사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4만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인증기준에 따르면 현재 축사규모로 6만수 이상 입식이 가능하지만, 평당 사육수수를 줄



28주령된 계군, 암:수=15:1 비율로 유정란 생산



▲ 김동수 사장(좌), 아들 김정구 팀장(우)



▲ 농장 입구(위), 유창계사(아래)



▲ 방문객 방역을 위한 장화 및 방역복 비치

여 살아있는 생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건강한 계란을 공급하고자하는 김동수 사장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다.

유창계사에 암수비율은 15:1로 85%에서 최대 95%의 산란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부분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양계전문수의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사료에 녹차성분이 들어간 생균제, 흑운모, 마늘 등 항생제 대체 첨가제를 사용해 항병력을 높이고 있다.

묘룡산자연농원에서 생산되는 유정란은 풀무원, 트루라이프 등 상품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는 가정집으로 배달되고, 일부는 유통상인과 직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풀무원 납품의 경우는 검란과정에서 점박이 등 난각의 이상이나, 실금이라도 발견되거나 등급에 미달됐을 경우 다시 반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생산과 관리를 통해 납품하고 있었다.

유정란 가격은 생산가가 일반란보다 개당 30원이 높게 거래되며 시세 등락폭 없이 거래되고 있다. 유정란은 계란성분 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평사 혹은 자연방사 사육은 근본적으로 케이지에 사육되는 닭과 달리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축산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좋은 축산물 공급을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GP센터-시간당 1만개 처리 능력

### HACCP 인증

김동수 사장은 남보다 앞서서 준비하는 축산인이다. 지금에야 HACCP에 많은 축산인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지원자금 등으로 인증이 수월해 졌지만, 김동수 사장은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양계농장 HACCO의 기준이 없고,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교육을 받는데 용어해석 등의 난관에 부딪혀 초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전한다.

HACCP 인증을 받기위해 컨설팅 업체를 통해



◀ HACCP적용작업장 지정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품질인증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원으로부터 주중 1회 하루 6시간씩 12회 교육을 수료한 후, 시찰 등 검증과정까지 총 5~6개월 소요기간이 걸렸다. 앞으로 많은 국내 농가들이 생산물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HACCP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국내 최고의 선진 유정란 농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힌다. 이를 위해 강건한 계군과 질병차단을 통해 신선하고 안정적인 식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보증하고 신뢰받는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 포부를 내세웠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